

필리핀, 서비스부문의 호조에 따른 성장세 계속 유지

□ 서비스 부문중심의 성장세 지속

- 필리핀은 4사분기중 4.5%의 성장세를 보여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였는데, 이는 서비스부문의 성장과 함께, 연초 엘니뇨 현상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의 강한 성장세를 보인 것에 기인하고 있음.
- 그러나 제조업생산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정부의 긴축정책에 따른 공공건설부문의 부진으로 2002년의 3.7%에서 3%로 둔화되었음.

□ 수출은 점차 회복세 보여

- 수출은 2003년 말부터 강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해 12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95%가 증가한 32억 달러에 달했는데, 이는 필리핀의 최대 수출품목인 전자제품 그리고 농산물 수출 증가가 제2위 수출품목인 석유류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여 이루어졌음.
- 수출을 국가별로 보면 대미 수출이 12%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일본 및 홍콩으로의 수출이 각각 17%와 9%의 증가를 보였음. 2003년 전체로 보면 수출증가율은 1.5%로 전년도의 9.5%에서 크게 둔화되었는데 이는 주요 시장인 미국시장으로의 수출이 당초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임
- 금년에는 선진국경제의 호전과 폐소화의 약세유지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상품수지는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해 적자기조를 탈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.

□ Moody's 필리핀 등급 하향 조정

- 신용평가기관인 Moody's는 필리핀의 불안한 정치상황, 재정수지 적자 등을 이유로 외화표시 장기채 등급을 종전의 Ba1에서 Ba2로 내렸으며 부정적인 의견을 유지하였음
- 필리핀의 금융시장이 불안한 정치상황을 반영해 동요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는 선거를 앞두고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, 지난해 7월의 군사쿠데타 기도의 후유증이 남아 있고 이슬람 및 공산 반군 세력의 준동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
- 이러한 불안감은 일단 선거를 통해 불안감이 해소되는 경우 시장의 신뢰회복을 통해 전반적인 투자분위기 상승과 신뢰도 회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임

선임연구원 김종호(3779-6674)
E-mail: jhokim@koreaexim.go.kr